

“강력한  
신뢰의  
끈  
을

만들어보십시오

일산 총정교회 이야기



**우리** 교회처럼 제자훈련을 접목하기가 어려웠던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제자훈련을 시켜야할지 막막했어요. 한창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원하는 젊은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었던 교회** 주도권 다툼으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 10년 이상 대치상태로 지냈던 총정교회. 그 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7년이라는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남은 것이라곤 분열의 상처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성도들끼리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성도간의 교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분열로 인해 젊은 성도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아 있는 200여명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노인들인 이 교회에 옥성석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1989년, 그의 나이 36세 때였다. 당시 총정교회에 대한 상황이 널리 알려져 있던 터라 어느 누구도 담임목사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 옥 목사도 처음에는 총정교회 담임목사직을 고사했다. 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충청교회의 당회원들의 끈질긴 설득에 6개월이 지난 후 설교를 하게 됐다. 그 자리에서 피폐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옥 목사는 고민하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의 상황이 훨씬 심각했던 것이다. 결국 그는 '어차피 누군가는 맡아야 할 교회라면 내가 맡겠다'는 각오로 충청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수락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부임했지만,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막막함을 그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앉아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었으니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는 당시 교회의 상황을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라고 표현했다.

**“젊은 목사 한번 밀어줍시다”**

“그때 그나마 힘이 됐던 것은 장로님들의 격려였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분명히 최악이었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어

요. 그 정도로 침체상태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젊은 목사 한번 밀어주자’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1990년에 시작된 1기 제자훈련은 여자반으로 시작했다. 여자반 1기가 끝난 뒤, 여자반 2기와 함께 남제자반 1기를 시작했다. 은퇴를 앞둔 장로들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역시 무리라고 판단하고 장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로로 추대될 예정인 안수집사들을 중심으로 남제자반 1기를 시작했다. 제자훈련의 기간도 2년으로 길게 잡았다. 1년 가지고는 쉽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판단에서였다. 옥 목사는 제자훈련 교재 외에도 수시로 주제를 선정하여 제자훈련을 인도했다. 사역훈련까지 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꽤 긴 훈련 기간이었다.

40여년 동안 전통적인 목회에 익숙해있던 그들은 제자훈련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우선, 가장 힘들어한 부분은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이었다.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 밭정에 서야만 했던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일이었다. 옥 목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동안 매 주마다 훈련생의 가정을 돌아가며 제자훈련을 실시했다.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다보면 삶을 나누는 것도 쉬워진다는 생각에서였다.

옥 목사는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철저히 원칙을 지켰다. 특히 결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훈련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였다. 남제자반 1기를 수료한 박창용 장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한다.

“어느날 몸이 너무 아파서 제자반을 하루 쉬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반에 가서 조퇴시켜달라는 의미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데도 모른척하고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다. 전혀 꾀쩍도 안 하셨어요. 그만큼 원칙적으로,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는 옥 목사를 보면서 훈련생들의 마음에 쌓인 것은 불평이 아니라 신뢰였다.

제자훈련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원칙을 중요시하는 인도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제자훈련의 모델, 남제자반 1기**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충청교회는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교회가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간에 강력한 신뢰의 끈이 형성된 것이다. 그 신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남제자반 1기 수료생들이다.

남제자반 1기 수료생들에게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옥 목사가 충청교회에 부임할 달을 기념하여, 매년 6월이 되면 하루를 정해놓고 부부동반 모임을 갖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물론 옥 목사 부부도 함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인들은 목회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목회자가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동참하고 따라옵니다.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다 보면 결국 아무 것도 못하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자세가 있으면, 비록 시간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전광석화처럼 처리된 교회 이전 문제**

옥성석 목사는 예배당을 충정로에서 일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목회에 동역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1999년 9월 13일 월요일 오후, 옥성석 목사는 동료 목사로부터 일산에 교회 부지가 나왔다는 전화

“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철저히 원칙을 지켰다. 원칙을 강조하는 옥 목사를 보면서 훈련생들의 마음에 쌓인 것은 불평이 아니라 신뢰였다 ”

게 한다. 그리고 한 방에서 전체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옥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날 밤은 옥 목사와 남제자반 1기 수료생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시간인 것이다. 담임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 간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라 할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남제자반 1기의 이런 모습을 충청교회 제자훈련생들이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남제자반 1기는 단순한 선배가 아닌, 그들이 닮아가야 하는 모델인 것이다. 그렇기에 옥 목사는 “1기 제자반이야말로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한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회철학과 열정, 지속적인 관심, 집중적인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를 받았다. 마침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를 이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옥 목사는 다음 날 시간이 되는 장로 두 명과 부지를 보러 일산으로 갔다. 그리고는 수요일에 끝나고 임시당회를 열어 부지에 대해 설명했다. 당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부지를 계약하자고 결정했다. 그리고 9월 16일 목요일, 충청교회는 부지 구입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끝냈다. 교회 이전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데 단 4일이 걸린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하나 의문을 제시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정로에서 일산은 지하철로도 족히 1시간 가량 가야 하는 곳이다. 성도들로부터 교회 다니는데 불편하다는 불평을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옥 목



사의 목회 비전을 이해하고, 평신도 동역자들로 변화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옥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문난 교회, 원가 다르다

2003년 11월 현재, 충정교회의 주일 낮예배 성인 출석수는 1,400여명 정도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일산으로 예배당을 옮기기 전 충정로에서의 마지막 주일 낮 예배 성인 출석수가 300명도 안됐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보면, ‘일산이라는 신도시로 예배당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도시 주민들만큼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드물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의

‘충정교회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장로의 신분으로서 기존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다보니 아무래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충정교회에 와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내가 마음을 맡겨도 좋을 만한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 교회가 7년 동안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을 벌여 싸우던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는 김 장로는 충정교회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자훈련을 받으면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저도 역시 제자훈련을 통해 철저히 섬기는 모습이 장로의 본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충정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철저한 섬김과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을 리

“막막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통해 평생 함께 할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운 옥성석 목사, 그리고 그런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의 짐을 나누려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는 충정교회”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절대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충정교회가 일산에서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지역적인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은 것도 아니었다. 충정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대부분 충정교회에 대한 주변의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었다. 2002년에 등록했다는 김병구 협동장로는 이렇게 전한다.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저는 가족과 함께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옥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오시더니 제게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들을 모두 부르시더니 한분 한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주변에서 말하던

없고, 그런 교회가 소문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교회가 이제는 서로 섬기기 위해 애쓰는 교회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제자훈련 목회철학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원칙을 지킨 한 목회자의 헌신 때문이었다. 막막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제자훈련을 통해 평생 함께 할 평신도 동역자들을 세운 옥성석 목사, 그리고 그런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의 짐을 나누려는 평신도 동역자들이 있는 충정교회. 우리는 그런 충정교회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본다.

〈박순종 목사〉